

## 1. 문 22

정답을 ③으로 수정하며, 해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ㄱ (×) :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고대축제의 방식에서 인간과 자연은 직접 조우하여 하늘과 땅과 인간의 수직적 유대관계를 형성했다. 이러한 형태는 점차 시간이 지나 의례가 간소화되는 과정에서 의례전문가의 등장으로 바뀌게 됐는데, 천자는 인간과 하늘의 만남을 매개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국가-중심적 제천의례를 확립했다. 때문에 인간과 자연은 시간이 지나며 천자라는 매개체를 통해 유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천자라는 매개체를 통해 조우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인간과 자연 사이에 유대가 형성되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 ㄴ (×) : 첫 번째 문단 여섯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고대의 축제는 의례적 실체의 총체가 연합하여 총체적인 효과를 낳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러한 복합적인 의례는 의례전문가에 의해 해체되고 단순화되었다. 천자라는 의례 전문가가 등장하던 시기의 의례는 과거에 비해 단순해졌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으나, 의례의 목적을 하나로 좁힌 게 의례 단순화의 원인이었는지는 해당 지문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
- ㄷ (○) :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과 일곱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고대 축제는 여러 목적과 요소가 응축된 총체적인 생태학적 축제의 특성을 가졌으며, 축제의 시간과 공간은 음양 이분법으로 단순하게 분류됐었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응집이 이뤄짐에 따라 고대축제의 특성은 일상적 관계와 실천에 있어 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고, 점차 의례들은 각 체계의 종교적 사유로 분산되어 간소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 2. 문 37

정답을 ③으로 수정하며, 해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ㄱ (○) :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지문에 따르면 전체 사회는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의 합이고, 사회 전체의 공익은 부분이익, 특수이익들의 합이다. 따라서 전체 사회가 단순히 여러 부분들의 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면 지문의 논지를 약화한다.
- ㄴ (×) :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지문에 따르면 공동체주의자들이나 공화주의자들과 같이 시민적 덕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공동이익을 추구하여 소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문은 공동체주의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 ㄴ>은 옳지 않다.
- ㄷ (○) :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지문에 따르면 오늘날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의 하나는 실질적으로 결사체의 자유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날 제도적으로 결사체의 자유가 이미 실현되어 있다는 진술은 지문의 논지를 약화한다.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